



1992년 FDA의 결정에 따라 요즘은 이런 키랄 (chiral) 의약품의 이성질체를 분리하도록 되어있고 그에 따라 관련연구도 활발한데, 좀 더 일찍 이런 함정을 알았다더라면 물개 같은 아기들이 태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이 약은 참 희한한 약이다. 동물에 약의 부작용을 시험한 결과 아무런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 동물에게 수면제의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사람과 실험용 동물과는 엄연히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는 드문 일이다. 사람에게엔 수면제인데 동물에게엔 아니고, 동물에게엔 아무 부작용이 없는데 사람에게엔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있는 약, 이런 보기 드문 희한한 약이 바로 탈리도마이드였다.

## 2. 신참이 세상을 구하다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탈리도마이드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던 1960년 독일의 제약회사는 미국내의 판매를 위해 FDA의 승인을 요청했다. 워낙 유럽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약이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 FDA의 관리들은 이 건을 갖 들어온 여성 약품검사원인 Frances Kelsey 박사에게 맡겼다. 그런데 켈시 박사는 다른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이 약의 승인에 신중을 기했다. 그녀는 꼼꼼한 여성이었고, 게다가 신참이었던 것이다.

제약회사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켈시 박사는 약의 부작용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약의 승인을 미뤘다. 그녀의 이런 고집에는 그 이상한 동물실험 결과가 한 몫을 했다.

“동물에게 아무 효과가 없는데 사람에게엔 수면제다. 그렇다면 동물에게 아무런 해로운 부작용이 없다고 사람에게도 그럴 것이라고 장담 할 수 있는가?”

승인을 채촉하며 팔짝팔짝 뛰는 제약회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켈시 박사는 더 많은 자료를 기다리며 고집 세계 버텼다. 그러는 사이 탈리도마이드에 대한 새로운 임상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1961년 2월, 탈리도마이드를 장기 복용한 환자들에게서 손이 굵거나 저린 부작용이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그 이유는 아마 그 약이 신경계에 이상을 유발하기 때문인 것 같다는 보고였다. 이 보고만으로도 약의 승인은 힘들게 되어 버렸는데, 같은해 11월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한 임산부들로부터 기형아가 출산되었다는 결정적 보고가 나왔다. 몇 달 후, 독일 회사는 자진해서 승인요청을 철회했다. 이 후 브라질과 멕시코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탈리도마이드의 판매가 금지되었다. 브라질과 멕시코가 무슨 이유로 계속 그 약의 자유로운 판매를 허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 이것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온 유럽이 만 명이 넘는 기형아로 들끓고 있을 때 미국에선 단 17명의 탈리도마이드 아기가 태어났을 뿐이었다. 이것은 온전히 켈시 박사의 공이었다. 1962년 7월 15일 ‘워싱턴 포스트’는 수천 명이 되었을 지도 모르는 기형아의 탄생을 막은 켈시 박사를 칭송하는 기사를 1면에 실었다. 또 이 공로로 켈시 박사는 Federal Civilian Service 최고상을 케네디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 (그림).

매사를 원칙대로 하는 신참이었기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꼼꼼한 여성이었기에 켈시 박사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었다. 모두가 늘 신참 때의 자세를 지킨다면 참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 3. 그 후

이 후 사람들의 기억에서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은 잊혀져 갔다. 그러나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1965년 이스라엘의 어느 의사가 문둥병환자에게 탈리도마이드를 투여한 결과 환자의 고통이 감소하고, 염증이 가라앉았으며 특히 환자가 편히 잠들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탈리도마이드가 문둥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와 훌륭하게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었다. 지금은 문둥병의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다.

또한 이 약이 염증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관절염, 염증에 의해 손상되고 부어 오른 조직의 치료에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단순한 관절염이라면 어디 무서워서 선뜻 이 약을 쓸 마음이 생길까 모르겠다. 물론 처방을 얻기도 힘들다.

얼마 전부터는 AIDS의 원인균인 HIV 바이러스에 의한 케양의 치료, 유방암과 전립선암의 치료에도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탈리도마이드는 사라지지 않고 이런 저런 질병의 치료에 나름대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에 의해 이 약은 요즘 갑자기 엄청나게 떠버리고 말았다. 약 팔자도 시간 문제인 모양이다.

요즘 탈리도마이드는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이 새로운 전성기의 직접적인 시발은 골수암의 치료였다. 미국 알칸소(Arkansas)주의 어느 병원에서 골수이식조차도 실패한, 아무런 희망이 없는 말기 골수암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한 결과 극적인 효과를 보았다. 이 사례가 알려진 후 현재는 거의 모든 암의 치료에 탈리도마이드가 시험되고 있다. 그러나 보고된 임상 결과가 다 장미빛은 아니다. 일부 기가 막힌 병의 호전이 보고되기도 하지만, 상당수 환자에게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보고도 많다. 이렇게 제한적인 환자에게서 제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적인 반전을 노리는 많은 불치병 환자들에게 탈리도마이드는 지금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다.

얼마 전 일본 NHK에서는 이 약에 대한 특집을 방송했다. 일부 암환자들이 이 약을 멕시코, 브라질 등에서 밀수입해서 복용하여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의사가 처방을 안 해주자 판매가 자유로운 이들 나라에서 사오는 것이다. 심지어 일본 내에서 몰래 제조를 하는 곳도 있었다. ‘뽕’을 몰래 만든다는 소린 들어봤어도 약을 몰래 만든단 소린 금시초문이다.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자 일본의 ‘탈리도마이드 피해자들의 모임’에선 이 약의 유통과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탈리도마이드가 이렇게 갑자기, 정말 갑자기, 뜨게 된 것은 전혀 다른 연구의 결과였다. 그것도 부산물인 셈이다.

다음호 (3호지)에 계속 ...

(chjlee@kist.re.kr)